



이 기 태
한국광산업진흥회장

안녕하십니까?
한국광산업진흥회장 이기태입니다.

올해로 8회째를 맞는 '2008국제광산업전시회'와 '국제광기술컨퍼런스'에 참가하신 광산업분야의 국내외 업체관계자와 바이어, 전문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

최근 광산업은 IT·NT·에너지·환경 등 다양한 산업과 융복합되면서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. 에너지 절감이 전 세계적인 이슈로 대두되면서 LED, 휴대폰 부품 시장 등 반도체 광원 분야가 급성장하고, 광통신 방식의 초고속 인터넷인 FTTH 관련 서비스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.

이러한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광산업에 약 9천억원을 투자해 1~2단계에 걸쳐 기술개발, 인력양성 등 인프라 구축과 산업집적화를 추진해 왔습니다.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결과로 국내 유일의 광산업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구축된 이곳, 빛고을 광주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광산업체들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, 세계 신기술 및 시장동향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

이를 위해 이번 행사를 주관한 우리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는 국제적인 구매력을 갖춘 해외바이어를 대거 초청하였으며, 예년보다 수출상담회와 신기술·신제품 발표세미나를 확대하였습니다. 전시회 또한 광산업 기반의 융·복합 신산업 창출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템들을 마련하였습니다.

'2008국제광산업전시회'와 '국제광기술컨퍼런스'가 광산업체 임직원,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의 축제이자 정보교류 및 시장개척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하면서 행사기간 동안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